

2027년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 수요조사 안내

의료기술 재평가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도입되어 사용 중인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NECA)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술 재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임상 및 보건 의료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술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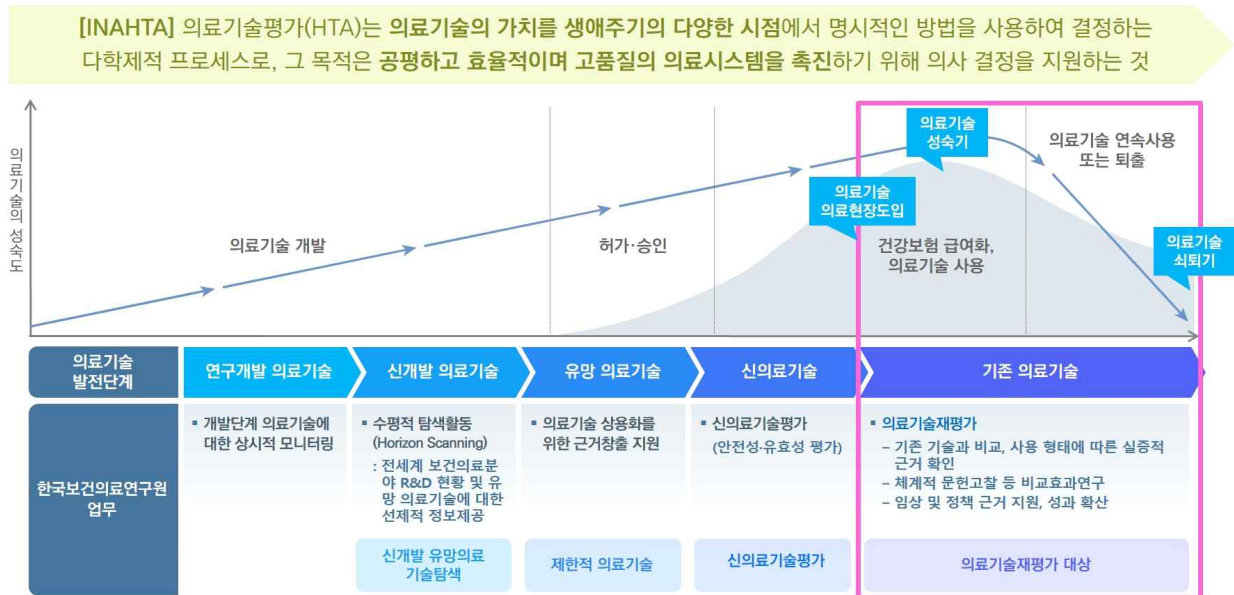
I. 의료기술 재평가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의료기술이 보건의료체계 내로 도입된 이후에도 임상 경험과 새로운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다른 대안 기술이 개발되는 등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동됨. 이에 따라 의료기술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변화된 근거와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른 근거 기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2019년 본 사업을 개시하였음
- 의료기술 재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5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제4조의3 신설) 및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25. 9. 4. 제정)으로 재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의료기술 재평가 정의

-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도입된 기존 의료기술(existing technology)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분석·평가함



<그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생애주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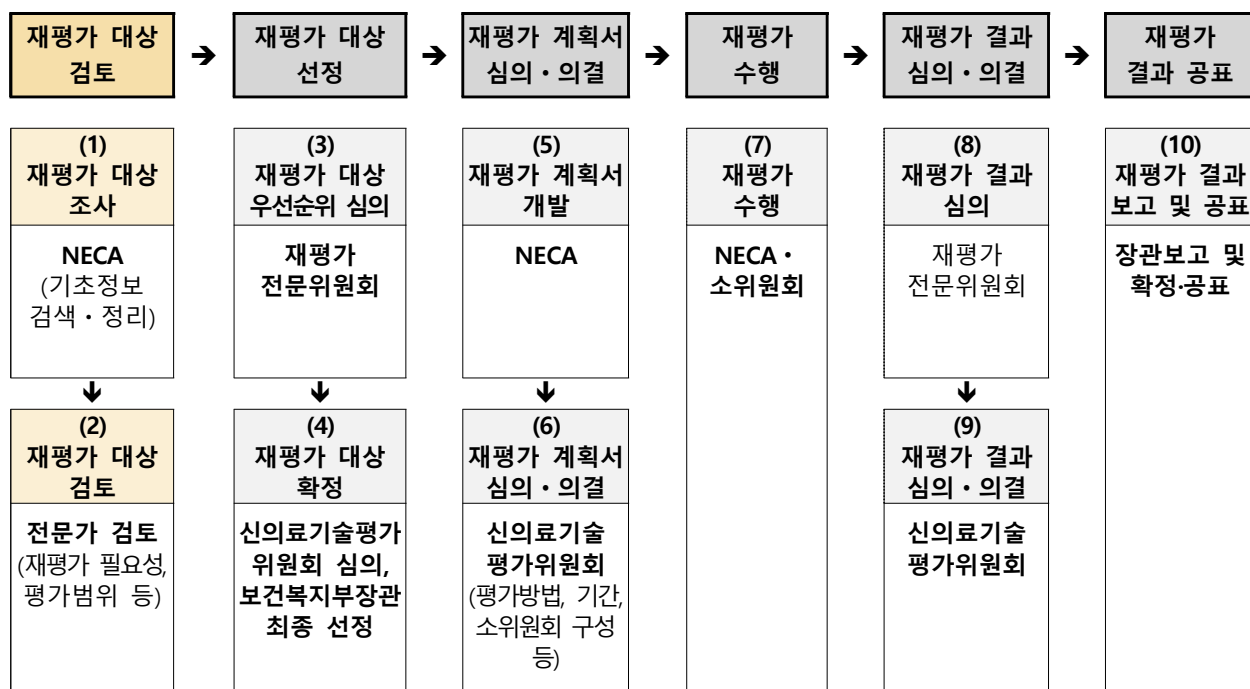
○ 재평가 검토 대상

-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도입된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이전 요양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료기술을 모두 포함)

-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이상 사례 보고가 증가하거나 규제기관의 안전성 경고가 있는 의료기술
- 의료기술의 발전, 질병의 표준 치료법 변경 등 임상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대안 기술 대비 상대적 유효성 등의 변동이 큰 의료기술
-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임상연구 결과 등에서 새로운 보고나 변경이 있는 의료기술
- 사용량 변화가 커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의 변화 가능성, 적정 사용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
-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크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나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 저평가된 의료기술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

- (재평가 대상 조사) 재평가 대상 기술은 전문가(학회 및 단체), 일반 국민 및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산업계, 정부·유관기관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안받음
- (재평가 대상 검토) 제안된 재평가 대상 의료기술에 대한 기초 정보, 관련 임상적 근거 등을 수집·정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평가 필요성, 의료기술의 특성, 비교기술 현황 등 상세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재평가 대상 선정) 재평가전문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대상을 최종 선정함
- (재평가 계획 수립) 선정된 재평가 대상에 대해 평가범위, 방법, 기간, 소위원회 구성 등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재평가전문위원회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재평가 수행) 확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함
- (재평가 결과 심의 및 공표) 재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전문위원회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재평가보고서 공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표함



<그림>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

○ 재평가 결과 활용 사례(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결정 근거 지원)

유형	재평가 예시
급여 전환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급여 전환)
선별급여 신설	• 소아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기존 보행치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추가 인정)
선별급여 확대	• 비디오 두부 총동검사(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50%)
선별급여 유지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유지)
선별급여 축소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90%)
비급여 전환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선별급여 → 비급여 전환)

II.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 수요조사 개요

- (목적) 다양한 의료기술과 관련된 관계자 대상 조사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대상 기술과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함
 - (대상) 전문가(학회·협회 등), 일반 국민,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산업계, 정부·유관기관 등
 - (기간) 2026. 10. 6.(화) ~ 10. 30.(금)
 - (방법) 온라인(이메일) 조사
 - (제출 방법) 붙임의 제안서 양식(전문가용 또는 일반국민용) 및 개인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용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
 - 이메일: htr1@neca.re.kr
 - (향후 추진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정보와 기존 근거 현황 등을 자체 조사·정리한 후, 관련 분야의 임상 전문가 및 방법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평가의 필요성, 평가범위, 방법, 수행가능성 등을 검토함('26.11월 ~ '27.1월)
 - 재평가전문위원회의 우선순위 검토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2027년도 재평가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임('27.1월 ~ 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